

# “겁없이 달려 들어라, 찬동이 처럼”

〈신인 수비수〉



김여울 기자 광주 FC 시즌오카 캠프를 가다

## 남기일 감독, 거침없는 플레이 주문

### “간절함은 올 시즌 광주 FC 무기”

#### 회식자리선 맥주 한잔의 여유 선물

프로축구 광주 FC 남기일 감독이 ‘머슴’을 찾고 있다. 지난 2일 일본 시즈오카에 마련된 광주 FC의 해외 전지훈련 캠프. 평온하던 캠프에 큰소리가 나왔다. 8일 후지에다 MYFC(J3)와의 연습경기가 끝난 뒤 남 감독이 신인 선수들에게 호통을 친 것이다. 신인 선수들의 소극적인 플레이가 원인이었다.

남 감독은 “신인 선수들이 ‘양반 축구’를 하고 있더라. 오는 공만 쫓아다니고 작은 체구의 상대 선수한테도 밀리는 등 신인다운 패기 넘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절박하고 간절한 선수들이 많은데 안일한 플레이를 하면 안 된다. 절실하게 패기 넘치게 뛰라고 쓴소리를 했다”고 말했다. 기술적으로는 설익은 신인 선수들이지만 과감하게 도전하고 깨지면서 틀을 깨고 조금씩 발전해나가기를 바라는 남 감독의 마음이었다.

남 감독이 2015 시즌을 앞두고 찾고 있는 것은 ‘머슴’같은 선수다. 최선을 다해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프로의 벽을 뛰어 넘고 팀의 승리를 불러줄 수 있는 자원을 찾는 것이다.

신인 선수들의 패기를 이야기하던 남 감독은 수비수 이찬동의 이름을 꺼냈다.

남 감독은 “플레이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잡적어 뒀었다. 12월에 테스트를 했는데 반 팔 차림으로 나와서는 겁없이 상대에게 달려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머슴처럼 뛰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거침 없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었다”고 이찬동의 첫 인상을 말했다.

이찬동의 거침없는 플레이에 반해 그를 선택을 하기는 했

지만 지난 첫 해가 남 감독의 마음에 쏙 든 것은 아니다.

남 감독은 “처음부터 경기를 잘했던 것은 아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아찔한 장면도 많았다. 지금도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거침없이 경기를 하면서 많이 성장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본다. 몇 번이나 이찬동을 주라고 욕심을 내는 감독도 있었다”며 1년 사이 훌쩍 자란 제자에 대해 뿌듯한 마음을 내비쳤다.

그라운드에 대한 간절함을 알고 후회 없이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수를 찾고 있는 남 감독. 머슴 같은 선수는 ‘악팀’으로 평가받는 광주가 클래식 무대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조직력의 한 요소이기도 하다.

한편, 눈물이 속 빠지도록 큰 소리 치긴 했지만 남 감독은 선수들에게 자유를 선물하며 마음을 달래주기도 했다. 9일 오후 외출 시간을 가졌던 광주 선수단은 저녁 회식을 하며 혹독하게 진행됐던 훈련의 피로를 풀었다. 남 감독은 맥주 한잔도 슬쩍 눈감아줬다. 선수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코칭스태프와 따로 자리를 앉은 것도 재책에 이른 남 감독의 당근 전략이었다.

/시즈오카=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0일 일본 시즈오카 도키노스미가 센터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광주 FC 선수단이 러닝을 하면서 몸을 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FC 컨디션 ‘맑음’ 체력 다지기·전술 훈련 ‘착착’...오늘부터 연습경기

광주 FC의 시즈오카 캠프는 ‘맑음’이다.

일본 시즈오카에서는 K리그 클래식 복귀를 앞둔 광주 FC 선수단의 시즌 준비가 한창이다. 1월 광양합속훈련을 진행한 광주는 지난 2일 시즈오카에 전지훈련 캠프를 마련했다.

2015 시즌의 비상을 노리는 광주 캠프의 기상은 ‘맑음’이다. 좋은 날씨가 선수들의 움직임을 가볍게 하고 있다.

광주가 시즈오카를 찾은 것은 올해로 세 번째다. 지난해에는 전지훈련지에서 40년 만의 폭설을 만나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 캠프 초반 계속된 폭설로 눈과의 싸움을 해야 했지만 올해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운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졌다.

시즌 준비 과정도 ‘맑음’이다.

‘체력이 힘이다’를 목표로 해 광주가 차근차근 힘을 키워가고 있다. 10일 훈련에도 많은 시간을 체력 다지기에 쏟아

부었다. 가볍게 연습장을 돌며 오전 훈련을 시작한 선수들은 새로 합류한 길레미 피지컬 코치의 ‘빨리빨리’라는 구호 속에 콘사이를 달리고 바를 뛰어넘으면서 땀을 쏟았다.

다소 쌀쌀한 바람이 불기도 했지만 이내 선수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한 세트의 훈련이 끝나면 경기장을 가볍게 달린 뒤 다시 콘 사이를 달리고 바를 뛰면서 체력 훈련을 반복했다. 유니폼이 흠뻑 젖은 뒤에야 선수들은 공을 차며 기술 훈련에 들어갔다.

미드필더 여름은 길레미 코치의 특별 관리를 받았다. 몸이 좋지 않아서 앞선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했던 여름은 선수들이 공을 쫓는 동안 길레미 코치의 눈길을 받으며 경기장을 뛰고 또 뛰었다. 타임 위치를 체크하며 숨을 고르고 뛰기를 반복하면서 여름의 질주는 계속 됐다.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뛸 수 있는 몸과 체

력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였다.

체력 훈련과 함께 ‘몸매 관리’도 혹독하게 진행되고 있다. 각자에게 맞는 체지방과 몸무게에 맞춰 길레미 코치의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 식단관리 등을 통해서 수문장 제종현은 날렵한 턱선으로 캠프를 소화하고 있다.

이날 새얼굴도 보였다. 무릎 부상으로 캠프에 참가하지 못했던 이은뜰이 9일 선수단에 합류한 뒤 10일 재활 훈련 등을 하며 몸풀기에 나섰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캠프의 위풍엄은 마무리 단계다. 지난 8일 캠프 첫 실전 연습경기를 치렀던 광주는 11일과 12일 연달아 연습경기 일정을 소화한다. 실전을 통한 기량 점검이 이뤄지는 것이다. 광주는 17일과 20일에도 연습경기를 갖고 24일 앞으로 다가온 시즌 개막에 대비할 예정이다.

/시즈오카=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FIFA 회장 ‘4파전’

### 블래터 회장에 3명 도전장...5월 29일 투표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선거가 4파전으로 공식 확정됐다.

FIFA는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4선을 한 제프 블래터 현 회장과 그에 도전하는 경쟁자 3명을 후보로 확정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도전자 3명은 네덜란드의 미카엘 판 프라흐, 뛰어난 포르투갈 선수 출신인 루이스 피구, FIFA 부회장인 요르단의 알리 빈 알 후세인 왕자다.

선거는 오는 5월 29일 스위스 취리히 FIFA 총회에서 209개 FIFA 회원국 축구협회의 투표로 치러진다. /연합뉴스

## KIA 선수용 상품, 온·오프라인 판매

KIA 타이거즈의 2015시즌 어센틱(Authentic·선수용) 상품을 온·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KIA와 마제스틱(majestic) 코리아가 올 시즌 선수들이 필드에서 입는 유니폼과 바람막이, 후디, 폴오버, 스타디움 재킷 등의 어센틱 상품을 판매한다.

올 시즌 KIA는 미국 메이저리그 유니폼 제작 업체인 마제스틱의 유니폼을 입는다. 마제스틱은 2005년부터 미국 메이저리그 모든 팀(30개)의 유니폼을 독점 공급하는 유니폼 전문 브랜드로, KIA는 올 해 국내에 런칭한 마제스틱 코리아의 첫 파트너가 됐다. 이번 시즌 KIA 유니폼은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착용하는 것과 동일한 소재의 원단을 사용해 최고의 경기를 펼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뒀다.

어센틱 상품은 구단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과 마제스

틱 쇼핑몰(www.lockerroom.co.kr)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유니폼 상의는 11만5000원, 바람막이(긴팔) 13만9000원, 춘추 재킷 17만9000원, 동계 재킷 22만9000원이다. 시즌 개막 이후에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3루측 ‘마제스틱 타이거즈숍’에서도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유튜브로 만나는 KIA 선수들

### SNS 채널 개설 덕아웃·경기 모습 공개

KIA 타이거즈가 사진·영상 콘텐츠 강화를 위해 소셜미디어 채널을 개설하고 10일 공식운영에 들어갔다.

우선 KIA는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kiabaseballclub)을 통해 선수단의 다양한 모습을 밀착해서 보여줄 예정이다. 경기 영상과 함께 경기 전후 덕아웃에서 선수들의 모습, 선수 인터뷰 등을 만날 수 있다.

인스타그램 계정(kia\_baseball\_club)을 통해서도 선수단의 경기 사진과 경기 외적인 선수들의 다양한 표정을 팬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트위터 계정(Kiatigers)에서도 문자중계와 선수단 소식을 다루는 등 팬과의 소통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여울기자 wool@